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일본의 새소식

2019 AUTUMN

Vol.

566



표지

스와진자의 군치축제(諏訪神社の長崎くんち) 나가사키현
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나가사키현상
Photo : PARK JUNG SIN

통권 566호 계간지
(2019년 봄호부터 계간지 발행)

발행일 2019년 11월 6일

발행처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CONTENTS

대사관 관련

- 03 JENESYS 2019 한국청년방일단
Cool Japan! 방재 투어리즘과 일본의 지역산업 시찰

일한 관계

- 06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_ 이케다 히로미 인터뷰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잇는 '미용'
- 10 자매 도시 소개
백제 왕족 전설이 있는 미야자키현 미사토정과 충청남도 부여읍

일본 사정

- 14 일본의 계절을 걷다
붉게 물든 가을의 교토를 걷다
- 18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바다 위의 쉼터 우미호타루 /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 도미우라 비와쿠라부
- 22 트렌드 앤 트렌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도쿄 호텔
- 26 일본이 알고 싶다
· 하마나코 호수에서 시작된 이야기, 시즈오카현 하마마쓰 · 하마나코 호수
· 웅대한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기리시마시

일본 문화

- 32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 건축가
자연을 담은 공간으로 환경과 소통의 건축가 이토 도요오
- 36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찾아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속의 도쿄

공보문화원 광장

- 40 일본문화원 리포터 경험담
·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
일본 고쿠시칸대학교 가라테부 공연
·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Tokyo
오감의 바벨탑을 위한 축제
근대의 시발점인 히바야 공원에서 한국을 만나다

문화 행사

- 42 · 제7회 고교생 일본퀴즈대회 개최
· 제15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 2020년도 JET 프로그램 모집요강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 44 성심의 사قم, 조선통신사

Cool Japan! 방재 투어리즘과 일본의 지역산업 시찰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 2019'의 일환으로 선발된 대학생단 36명(인솔자 2명, 학생 34명)과 고등학생단 28명(인솔자 2명, 학생 26명)이 9박 10일 일정(대학생: 2019년 7월 10일(수)~7월 19일(금), 고등학생: 2019년 7월 24일(수)~8월 2일(금))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Cool Japan 리포터로 구성된 이번 대학생단의 테마는 '방재(防災) tourism과 피해지 부흥 상황 시찰'이었다. 대학생은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을 방문하여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 주민의 경험담을 듣고, 현지 대학생과 교류했다. 또 피해 현장을 시찰하며 방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외에는 홋카이도에서 진행된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일본의 일반 가정생활을 체험하기도 했다.

고등학생단은 '일본의 지역산업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이라는 테마 아래 사이타마현과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도미오카 제사장 시찰, 도야마시 유리미술관 관람, 가나자와 금박 공예 체험 등을 통해 일본의 지역 산업과 지역 활성화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니가타현에서는 홈스테이를 비롯해 일본의 고등학생과 함께 부활동 체험 등을 하며 교류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귀국한 후, SNS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일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래 주소에서 참가자들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Cool Japan 리포터 네이버 공식 카페 (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는 Cool Japan 리포터, <http://cafe.naver.com/youthexchangejpkkr>)

우리가 받은 선물과 앞으로 가야 할 길

강릉명륜고등학교 이정

여러 일정 중에 나는 조에쓰시에서의 홈스테이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대면식 때 적잖이 긴장했었는데 막상 식이 진행되자 모두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대면식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가정식을 먹으며 긴장을 풀었고,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다. 나는 신사 임당의 초충도가 그려진 부채를 선물로 드렸는데, 홈스테이 가정 어머니께서 팬을 들고 그림의 의미를 하나하나 적으셨다. 마음에 드신 듯해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뒤로도 수십 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선물 이야기부터 양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까지, 따뜻한 온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다. 상냥하신 어머님과 조금은 무뎠직한 아버님, 일본 전원 가정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있었다.

홈스테이 2일 차에는 청년 방일단 모두가 마을 뒷산에 올라 농사를 지었다. 우리 조는 아침밥을 먹고, 어머님께서 주신 작업복으로 무장한 채 자동차에 올랐다. 트럭 짐칸에 몸을 싣고 밭으로 향하는데, 산 중턱에서 들리는 잔잔한 쓰르라미 울음소리와 이름 모를 들꽃이 이전에 접한 드라마나 소설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밭에 도착했을 땐 우리 말고도 이미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 있었다. 이곳은 농사를 지을 때면 주민 모두가 함께 일을 돕는 듯했다.



서로의 일을 도우며, 그들은 연대 의식을 길러간다. 농사는 한 팀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로테이션으로 진행했고, 막간의 휴식 시간에는 잠시 내려와 서로 담소를 나누며 준비해온 과자와 음료수를 마셨다.

이곳 주민들은 일과가 끝나면 옛 학교 건물에 모여 저녁을 함께하는 것 같았다. 우리 조는 대중목욕탕에서 샤워를 한 후,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다. 2000년대 한국의 찜질방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맛있는 음식과 재치 있는 사회에, 분위기가 물씬 돌아오르자 동네 아저씨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기면 선물을 준다고에 우리는 사회자가 진행하는 가위, 바위, 보 게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내심 진지하게 게임에 임했지만, 상품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던 아기가 차지했다. 게임 중간에 아빠가 아기의 손을 바꿔가며 꿈수를 쓰긴 했지만, 막상 선물을 받은 어린이의 환한 미소를 보자, 모두 그저 웃음을 터뜨렸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아기의 웃음은 언제나 옳다.

이곳에서는 일부러 저녁 식사까지 서로의 일상과 감상을 공유하며

살고 있었다. 나는 9박 10일 동안의 여정 내내 일본의 공동체 문화가 부러웠다. 학업과 일에 쫓겨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국과 달리,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서로 삶을 공유했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인의 여유로움을 배울 수 있었고, 공동체 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타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적잖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양 국민 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타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는 현재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고 성숙한 세계인으로서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 이것이 갈라진 관계를 해결할 진정한 실마리가 아닐까.





일본 호스트패밀리와의 만남

동덕여자대학교 이선영

지난 7월, 나는 쿨재팬 리포터 자격으로 외무성에서 주관하는 JENESYS 프로그램 한국청년방일단으로 10일간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정말 잘 되어있었고, 실질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연수를 통해 소화기 사용법,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확실히 익힐 수 있었다.

우리는 동북지역의 여러 재해 지역을 방문해서 부흥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공동체 의식에 감탄했다. 재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마을 주민과 상인, 행정공무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부흥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재해 지역에는 '진재유구'라고 해서 지진 피해의 잔재를 보존해 놓은 것들이 있었다. 재해 이후에도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후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재해 지역에서는 복구 상황 시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고 마음이 아팠다. 또, 매뉴얼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또는 리더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생명을 지키라고 한 말이 마음에 남았다.

재해 지역 시찰을 마치고 삿포로에서 홈스테이가 시작되었다. 우리 호스트 패밀리리는 고양이와 함께 사는 부부였다. 이틀간 회사도 쉬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두 분은 자녀가 없어서 만약 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 거라며 즐거워하셨다. 호스트 패밀리의 부모님 댁에도 초대를 받아 방문했는데, 따스한 환대를 받으며 행복했다.

호스트 패밀리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배려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짐이 무척 아쉬웠다. 삿포로 하면 눈이 생각나는 도시지만, 호스트 패밀리를 만난 후로는 이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곳이 되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양한 만남이 기억에 남는다. 쿨재팬 리포터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양국 대학생과 만남, 외교적 만남, 재해 지역분과의 만남, 홈스테이 가족과 만남까지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다. 만남을 통해 느낀 것은,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이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만남을 이어가며 이해의 지점을 만들어 가고 싶다.

양국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다녀온 일본이었기에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다. 개인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데, 국가 간에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만남을 기억하며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나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잇는 '미용'

서울에서 13년간 미용사로 활동 중인 HIRO(이케다 히로미, いけだ ひろみ) 씨. 일본에서 오픈한 한국의 '쑥쑤'살롱과 자신의 능력을 활용한 '쑥쑤×헤어 어렌지'의 콜라보 이벤트를 2년 전부터 일본에서 시작했다. 미용계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가교'로 활동 중인 HIRO 씨와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명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HIRO 씨. 우선, 미용사로서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미용실 손님은 어떤가요.

이전에는 60%가 한국 분이었지만, 일본어로 블로그를 시작한 후에는 역전되어, 60%가 일본 분이고 40%가 한국 분입니다.

지금은 양국의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느낌이 되었지만, 13년 전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샤키컷(레이어를 넣어 머리숱을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 일본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스타일은 한국의 헤어 살롱에서 할 수 없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의 '가벼운' 헤어스타일을 원하셔서 소개의 소개를 통해 일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오셨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한국 손님은 일본어를 잘하거나 일본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랜 세월 이 미용실에 다녔거나 혹은 헤어스타일에 익숙해져, 익숙한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고 싶은 이유에서 오고 계십니다. '미활': 미



明洞で美容師として勤めているHIROさん。まずは美容師としてのお話を伺います。

美容室のお客さんは?

以前は6割が韓国の方でしたが、日本語でのブログを始めてからは逆転し、6割が日本の方、4割が韓国の方になりました。今はもう日韓のヘアスタイルが似たような感じになってきましたが、私が13年前に韓国に来て間もないときには、シャギーカット(レイヤーを入れて髪のを軽くするスタイル)が日本のスタイルでした。当時、このスタイルは韓国のヘアサロンではできないスタイルだったので、多くの韓国の方が、日本の「軽い」ヘアスタイルを求めて、紹介の紹介を通じて日系のサロンにいらっしやっていました。今、来られている韓国のお客さんというのは、日本語が上手だったり、日本関連の仕事をされていたりという方が多いのですが、長年この美容院に通っているから、慣れている美容師にヘアを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理由で来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美活:美を求める活動」で韓国に来られる日本の方がその一

(美)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한국에 오는 일본 분이 그 일환으로 미용실에 오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미용은 물론 카페 순례나 한국 음식은 어떤 가게가 맛있는지, 한국의 연예인, K-POP, 아이돌 이야기도 합니다.

미용을 통해 느끼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여성의 '미'에 대한 추구는 어디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제 생각으로는 '미용'에 있어 양국의 차이는 '숨긴다'와 '없앤다(제거)'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미가 생겼다', '점이 있다', '여드름이 났다'고 할 경우, 없애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숨기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왜 없애지 않는거야?'라는 생각에서 피부과에 가는 분이 많고, 평소 피부 관리를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과를 다니며 직접 케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용실이라는 공간을 넘어, 일본에서 오픈 하는 한국의 민간요법인 '쑥찜'살롱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살린 '헤어 어렌지×쑥찜'콜라보 이벤트를 일본에서 시작한 HIRO씨. 이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콜라보 이벤트를 시작한 계기는?

2년 전 한국에 있는 일본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친구 그리고, 한국에서 쑥찜 살롱을 하는 한국인, 일본인 부부의 지인이 아이치현에서 쑥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점포 오픈을 계기로 콜라보해 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번 개최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알게 된 다른 친구가 교토에서 '쑥찜'가게를 오픈한 것을 계기로 교토에서도 2번 개최했습니다. 아이치현 이벤트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교토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콜라보 이벤트 활동은?

제가 담당하는 헤어 어렌지는 미용실에서 헤어 아이론으로 세팅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해줘야 가능한 어렌지가 아니라, 평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헤어 어



環で美容室に来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が, そうした方々とは美容はもちろん, カフェめぐりや韓国料理はどのお店が美味しいのか, 韓国の芸能人, K-POP, アイドルの話もします.

「美容」を通じて感じる日韓の違いや共通点は?

女性の「美」に対する追求はどこも同じだと思いますが, 韓国生活が長い私が思うに, 「美容」における日韓の違いは, 「隠す」と「なくす(除去)」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韓国では「しみができた」, 「ほくろがある」, 「にきびができた」といった場合, 「なくそう」とします. 一方の日本では「隠そう」とします. 韓国では, 「どうして取り除かないの?」という考えが多いため, 皮膚科に行く方が多いので, 普段のスキンケアが基礎化粧品だけではなく, 皮膚科に通って直接ケアするケースが多いように感じます.

美容室という空間を越えて, 日本でオープンする韓国の民間療法である「よもぎ蒸し」サロンとタッグを組み, 御自身の能力を活かした「ヘアアレンジ×よもぎ蒸し」コラボイベン



레지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헤어 어레지 자체는 (한국보다) 일본이 종류가 다양해서 스타일은 일본에서 발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머리에 한해 한국에서 유행하는 시스루뱅(앞 머리 스타일 중 하나)이 호평입니다. 한국에서는 앞머리를 마는 사람이 많은데, 이를 궁금해하는 일본 분이 앞머리 만드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이벤트는 1회당 평균 10명의 손님이 오실 수 있는 규모입니다. 헤어 어레지는 한 사람당 2시간으로 정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조언하기 때문에 10명이 빠듯하지만, 많을 때는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이 참여하나요.

주로 일본 분이인데, 연령층은 기본적으로 30~40대입니다. 50대도 있는데 따님과 모녀간에 오는 경우가 많고, 성별은 여성이 많습니다.

손님 가운데, 원래 한국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SNS 덕분에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어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 #헤어 어레지라고만 이벤트내용을 알렸는데,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분이 우연히 발견하시고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는 상관없이 찾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쑥찜'을 모르는 분도 계신데, 쑥찜 체험자가 여러 체험담을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보고 싶다"며 쑥찜을 체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의 미용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분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합니다.

콜라보 이벤트에 참가한 손님들의 소감은.

トを日本にて始められたHIROさん。コラボイベントについてお話を伺います。

コラボイベントを始めたきっかけは？

2年前に韓国にある日系美容室で勤めていた友人と、韓国でよもぎ蒸しサロン営む日韓夫婦の知り合いが、愛知県でよもぎ蒸しのフランチャイズ展開を始めました。お店のオープンを契機にコラボしないかというお声をいただき、昨年12月から始まり、今までに7回開催されました。

また、別の韓国で知り合った友人が京都で「よもぎ蒸し」のお店をオープンしたことを契機に、京都でも2回開催しました。愛知県でのイベントは2か月に1度の定期開催、京都では不定期で開催しています。

コラボイベントでの具体的な活動は？

私が担当するヘアアレンジは、お店でコテを巻いたりといった、他人にやってもらわないとできないアレンジではなく、普段、自分でできる簡単なヘアアレンジを講座として始めました。ヘアアレンジ自体は(韓国より)日本の方が、種類が豊富なので、アレンジのスタイルは日本で発信しているものが多いのですが、前髪に限っては、韓国で流行っているシースルーバング(前髪のスタイルの1つ)が好評です。韓国では前髪を巻く人が多いのですが、これが気になっている日本の方からは前髪の作り方を聞かれます。

1回のイベントには平均で10名のお客さんが来られるような規模感です。ヘアアレンジは一人あたり2時間と決めて、一人一人にアドバイスをしているので、10人がぎりぎりですが、多いときには15人の方が参加してくださいました。

お客さんはどんな方々？

主に日本の方ですが、年齢層は基本的に30~40歳代。50歳代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が、50歳代の方は娘さんと親子でいらっしゃることも多いです。性別は女性が多いです。

お客さんの中にはもともと韓国好きな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今は、SNSのおかげで様々なところから情報を得て来られるようです。最初、Instagramに「#ヘアアレンジ」だけでイベントの様子を投稿していたのですが、愛知県在住の方がたまた

아이치현에서는 헤어 어렌지를 한 후, 오찬회를 준비하는데, 실제로 쑥찜을 (이벤트에서) 체험한 분이나, 한국에 흥미를 갖고 계신 분도 많아서 ‘쑥찜을 하고부터 생리통이 나아졌다’ ‘냉증이 개선되었다’ ‘쑥의 디톡스 효과로 편두통이 나아졌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오찬회의 화제는 한국의 미용 이야기가 많습니다. 항상 하는 질문은 ‘왜 한국 여성의 피부는 저렇게 깨끗한가’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있나’ ‘어떻게 머리 결이 저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콜라보 이벤트에 대한 전망은.

지인을 계기로 시작한 콜라보 이벤트이지만, 일본에서 쑥찜 살롱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다양한 쑥찜 살롱에서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일하다 보면, 특히 한국 봄이기도 해서 일본 곳곳에서 손님이 오십니다.

일본의 한 장소에서라면 이런 만남은 없을 테니, 여러의미에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분은 (제일이) 부럽다고 하십니다. 이곳에서의 일은 행복합니다.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분에게) 한국 미용을 전하고 있지만, 한국 분들이 일본 미용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미’사이에서 양쪽의 좋은 점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ま見つけて、韓国への関心に関係なく、来られ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なので、中には「よもぎ蒸し」を知らない方もいらっしゃって、よもぎ蒸し体験者が様々な体験話をして、それを聞いて「自分もやってみたい」といってよもぎ蒸しを体験され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韓国の美容情報を交換する場でもあるので、全く知らなかった方もその話を聞くうちに「やりたい」とおっしゃいます。

コラボイベントに参加されたお客さんの感想は?

愛知県での開催ではヘアアレンジの後にランチ会を設けていたのですが、実際によもぎ蒸しを(イベントを通じて)体験した方や、韓国に興味を持っている方も多いので、「よもぎ蒸しをするようになってから生理痛が治った」「冷え性が改善された」「よもぎのデトックス効果で偏頭痛が治った」という声を多く聞きます。また、ランチ会での話題は韓国の美容の話が多いです。必ず聞かれるのは、「どうして韓国の女性の肌はあんなに綺麗なのか」「どんなコスメを使っているの」「どうしてあんなに髪の毛が綺麗なのか」といったことです。こうした質問に対して答えていくという雰囲気です。

今後のコラボイベントへの展望は?

知り合いをきっかけにして始まったコラボイベントですが、日本でのよもぎ蒸しサロンのフランチャイズ展開は引き続き拡大予定だそうなので、様々なよもぎ蒸しサロンで、定期的にイベントが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

最後に。

海外で仕事をしていると、特に韓国はブームでもあるので、日本全国からお客さんが来られます。日本の1つの場所であつたら、こうした出会いはないので、様々な意味で刺激を受けています。

韓国好きな方からは(私の仕事を)羨ましいと言ってもらえます。この場所での仕事は幸せなことです。こうした特別な場所で仕事をしているので、(今は日本の方に)韓国の美容を伝えていますが、韓国の方から日本の美容についても聞かれることがあるので、日韓の「美」の間に立って、双方の良いところを紹介でき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오사라바 오사라바'를 외치는 마을 사람들

백제 왕족 전설이 있는 미야자키현 미사토정과 충청남도 부여읍



공식 캐릭터 미사토짱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요카구라

미사토정(美郷町)은 미야자키현 히가시 우스키군(宮崎県 東臼杵郡) 남부의 난고(南郷), 사이고(西郷), 기타고(北郷) 3곳을 통합하며 생긴 마을로 총인구는 4,826명(2019년 9월 1일 현재)이다. 마을 안으로 미미가와(耳川), 이스즈가와(五十鈴川), 오마루가와(小丸川) 3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강 주변으로 오래된 마을이 각각의 문화를 육성하고 있다. 현재는 시와스 마쓰리(師走祭り), 온다사이(御田祭), 우나마지조손 다이사이(宇納間地藏尊大祭)라는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전통 있는 3개의 축제 외에,

다양한 축제가 각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다.

또, 백제 왕족의 유품이라 전하는 동경(銅鏡)을 비롯한 귀중한 국보급 보물이 전시되는 니시노 쇼소인(西の正倉院)과 용소(폭포 밑의 깊은 웅덩이)에 용 신이 산다는 용 신 전설이 있는 오세리노다키(おせりの滝), 일찍이 별 관측으로 일본 최고의 실적을 낸 나카고야 텐문다이 스바루 돔(中小屋天文台昇ドーム) 등 수많은 전설과 풍요로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3개 축제 중 하나인 온다사이에 등장하는 소녀를 모티브로 한 미사토짱이라는 공식 캐릭터가 있다. 갖에 달린 금꿨과 별 머리 장식이 매력 포인트이며, 한국에 흥미가 많은 소녀로서 미사토정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이벤트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사토정의 자매도시 교류

미사토와 백제고도인 충청남도 부여읍은 난고손이 통합되기 전인 1991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체결 전인 1990년 초대 국제교류원이 부임했고, 두 지역 중학생이 상호 방문해서 홈스테이하는 등 교류를 돈독히 하면서 자매도시 결연까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통합 후에도 지속해서 교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중학생 8명이 부여군을 방문하여, 자매교인 임천중학교에서 교류하는 등 양국의 우호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현재 11대 국제교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역대 국제교류원은 귀국 후에도 양국의 친선가교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백제시대 의적의 머릿기



무카에비 속을 걸어가는 신행 행렬

미야자키현 미사토정의 축제

앞에서 말했듯이 미사토정에는 3개의 큰 축제가 있다. 그 가운데 1,000년 이상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이국땅에서 숨진 백제 왕 일족을 기리는 시와스 마쓰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백제 왕족 전설

서기 660년 백제는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수도 부여가 함락된다. 당시 우호 관계에 있던 일본은 원군을 보냈다고 하며,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패배한 백제는 4세기 이전부터 이어진 역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전설에 따르면 백제에서 온 정가와왕 그 왕자인 복지왕 일행은 아키노쿠니(安芸国, 히로시마현)의 이쿠시마(厳島)에 도착했으며, 안주할 땅을 찾아 휴가노쿠니(日向の国, 미야자키현)로 향했지만, 항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면서 정가와왕은 현재의 미야자키현 휴가시 가네가하마(金ヶ浜), 복지왕은 현재의 미야자키현 다카나베정(高鍋町) 가구치우라(蚊口浦)에 표착한다.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요카구라

그 후, 정가왕은 미야자키현 미사토정 미카도(神門)로, 복지왕은 미야자키현 기조정(木城町)의 히키(比木)에 거취를 정하고 잠시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미카도에서 벌어진 토벌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정가왕은 날아온 화살을 맞아 전사하게 된다. 히키로 돌아간 복지왕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고 한다. 정

가와왕과 복지왕은 사후에 각각 미카도 신사와 히키 신사에 모셔졌지만, 따로 떨어진 곳에 모셔진 부자를 안타깝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부자를 대면시키기 위해 복지왕을 모신 히키 신사에서 정가왕을 모신 미카도 신사까지 10일 동안 보도로 왕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와쓰 마쓰리의 기원이라고 한다.

시와쓰 마쓰리 일정

시와쓰 마쓰리는 1935년까지는 전 일정을 9박 10일동안 걸었지만, 현재는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1월 하순의 금, 토, 일(음력 섣달) 3일동안 열리고 있다.

축제의 첫날인 노보리마시(のぼりまし)는 히키 신사에 모인 신관 이하 18명이 미카도로 출발한다. 정가왕이 표착한 가네가하마에서 제사 의식과 목욕재계가 이루어지며, 그 후 정가왕의 차남인 화지왕을 모신 미야자키현 휴가시의 이사가 신사(伊佐賀神社)에서 미카도 신사와 히키 신사 일행이 1년 만에 만나게 된다. 재회를 마친 일행은 정가왕

정가왕을 모시고 있는 미카도 신사





이별의 슬픔을 감추기 위한 '헤구로누리'

의 무덤이라 일컬어지는 쓰카노하라(塚の原古墳) 고분으로 향한다. 쓰카노하라 고분에서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도리지루(鳥汁)를 대접받고, 식전과 가구라(神樂), 음복을 나눈 후 떠난다. 고사에 따르면 들불을 놓으며 출발한 일행은 고로모부치(衣淵)로 향한다. 오마루가와와 고로모부치에서 다시 한번 목욕 재가를 하는데, 길가와 강가는 구경꾼으로 북적거린다. 미카도 신사를 앞두고 도리이(鳥居) 앞의 눈에는 마을회관과 상공회, 지역 단체 등이 조립한 높이 5m에 달하는 30여 개의 망루가 세워지고, 신행행렬의 진행에 맞춰 차례로 불이 타오른다.

땅거미가 질 무렵, 미카도 신사 근처에서 하늘 높이 타오르는 무카에비(迎え火)의 장엄함과 스케일에는 누구나 압도된다. 일행은 이 가운데를 감격에 찬 표정으로 걸어서 미카도 신사 본전으로 나아간다.

무카에비 속으로 나아가는 신행 행렬

중간에 이루어지는 '제전 마이아카시(祭典・舞明かし)'에서는 신체(神体)의 고로모가(衣替え, 새롭게 단장하는 의

식)와 돈타로즈카(ドンタロ塚, 정가왕을 도운 현지 호족 돈타로의 묘)에서 가구라를 봉납하고, 오마루가와 강변에서 세탁 행사 등이 진행된다. 밤이 되면 아름답고, 우아하며, 해학적이고도 에로틱까지 한 다채로운 가구라가 봉납되며 떡과 소주 등의 나눔으로 떠들썩하다.

마지막 날인 구다리마시(下りまし)에서는 이별의 슬픔을 감추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헤구로누리(へぐろ塗り, 먹물을 얼굴에 바름)를 하고, 대나무로 엮은 소쿠리와 취사도구 등을 흔들며 일행을 배웅한다. 헤어질 때가 되면 조용한 산촌에 '오사라바, 오사라바' 하며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백제의 풍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 아주 오래된 형태가 지켜지고 있는 시와쓰 마쓰리에서 백제 왕족 전설의 수수께끼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 시와쓰 마쓰리 일정 : 2020년 1월 17일~19일

(집필 : 미야자키현 미사토정, 협력 : CLAIR, Seoul)



교토 시내를 걷다

붉게 물든 가을의 교토를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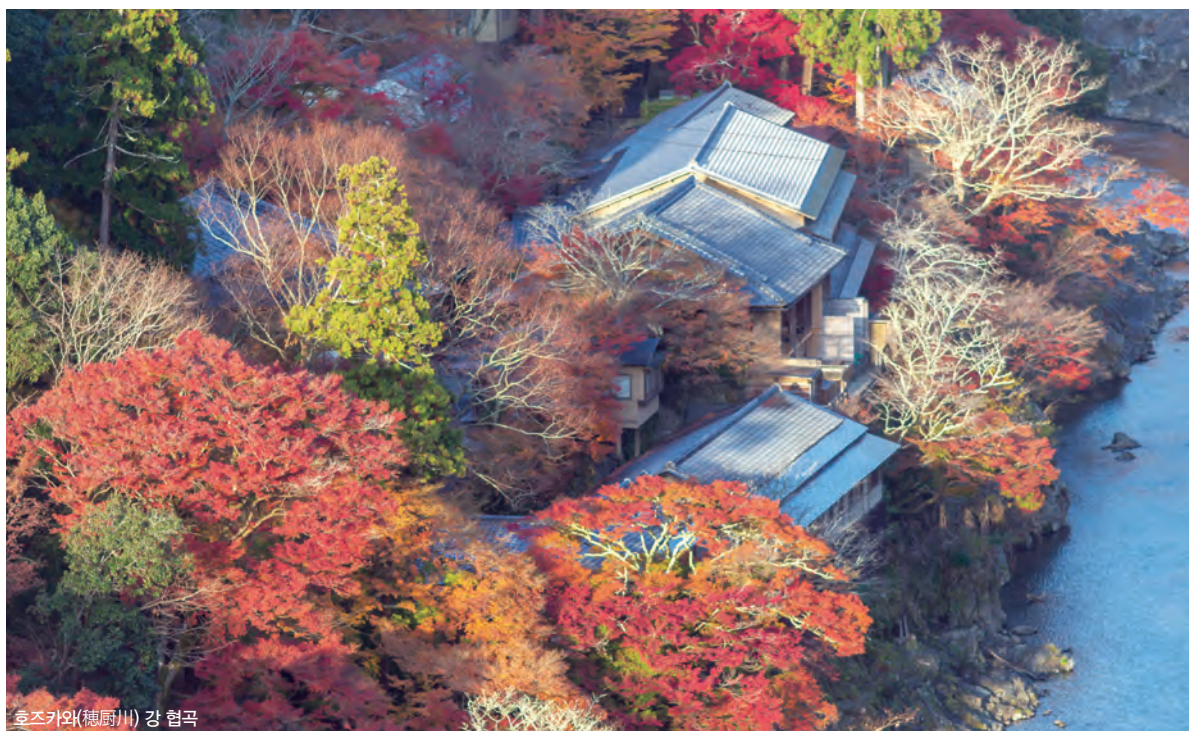
도쿄로 천도하기 전까지 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다양한 문화 유적과 전통을 소중히 지키며, 지금도 여전히 일본인의 정신적 수도이자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즈넉하고 조용한 도시지만, 마을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마쓰리(祭り, 축제)와 연중행사로 흥이 넘친다. 신사와 절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명소와 화려한 기모노의 마이코, 게이코를 볼 수 있는 기온의 거리, 일본의 3대 마쓰리 중 하나인 기온 마쓰리 등 교토를 찾는 이들을 매료시키는 요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갈하고도 담백한 맛의 교토 전통 요리인 교 요리를 비롯해 씹싸름한 말차 스위트, 아기자기한 화과자 등 다양한 먹거리, 기모노 체험, 다도, 좌선 등 다양한 일본 문화 체험이 가능한 문화의 도시 교토, 사찰과 유적 사이사이의 단풍나무로 붉은색으로 곱게 물드는 가을의 교토를 걷는다.

이른 아침의 아라시야마(嵐山)

아라시야마는 교토 서쪽 교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벚꽃



아라시야마 공원 가메야마 지구 전망대(嵐山公園 亀山地区 展望台)



호즈가와(穂厨川) 강 협곡

이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철, 그리고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철에는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관광객으로 가득 차는 명소다. 옛날에는 귀족이 별장을 짓거나 문인이 은둔 생활을 했던 곳이라서 일본 문학 작품이나 역사에 종종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늘로 곧게 뻗은 대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지쿠린(竹林)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덴류지(天龍寺)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가 산

골 마을에 흩어져 있어 깊은 청취를 느낄 수 있다. 또, 알록달록 귀여운 관광열차 도룻코 열차(トロッコ列車)나 호즈가와(穂厨川) 강 협곡의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배에서도 아라시야마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다.

아라시야마는 가을 단풍의 명소로 특히 유명하며 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오후가 되면 걷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으로 가득하다. 여유롭게 둘러보기 위해서



아라시야마



아라시야마



가쓰라카와(桂川) 강



가쓰라카와(桂川) 강



도게쓰교(渡月橋)에서 본 아라시야마



가쓰라카와(桂川) 강



호곤인(宝厳院)

는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좋다. 교토 시내에서 새벽부터 출발하는 노면 열차인 란덴 열차(嵐電列車)를 타고 아라시야마에 도착해 한적한 대나무 숲인 지쿠린을 지나 아라시야마 공원 가메야마 지구 전망대(嵐山公園 龜山地区展望台)에 오른다. 전망대에서는 단풍이 가득한 호즈카와 강 협곡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내려와 가쓰라카와(桂川) 강을 따라 도게쓰교(渡月橋)에 이른다. 다리 중간쯤에서 강과 아라시야마 산이 만드는 풍경을 잠시 감상하고 나면 슬슬 이곳의 사원들이 문을 열 시간이 되어간다. 덴류지(天龍寺), 호곤인(宝厳院), 고젠지(弘源寺) 등 단풍이 아름다운 사원들이 많으니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욕심내지 않고 한 곳을 골라, 건축물과 단풍이 만

들어 내는 가을 풍경을 감상하고 아침 아라시야마의 산책을 마무리한다.

가을의 교토 거리를 걷다.

가을 교토는 어딜 가도 단풍의 명소라고 할 만큼 멋진 풍경을 가진 곳이 많다. 일본에서 TV를 틀면 25년 넘게 나오고 있는 '교토에 가자(そうだ京都行こう)'라는 CF가 있을 정도로 일본을 대표하는 단풍의 명소 교토. 다리를 건너며 단풍을 감상하는 도후쿠지(東福寺), 산 위에서 도쿄 시내를 바라보며 절경을 감상하는 기요미즈데라(清水寺), 철학의 길을 따라 에이칸도(永観堂), 긴가쿠지(銀閣寺), 산문(三門)에 올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난



덴류지(天龍寺)



교토 시내 풍경



난젠지(南禅寺)



긴가쿠지(銀閣寺)



산문(三門)의 전망

젠지(南禅寺), 하나미코지 거리 끝의 겐니지(建仁寺) 등 시내에는 수십, 수백 곳의 단풍 명소가 있다. 가을 교토의 초심자라면 난젠지를 시작으로 지온인(知恩院), 마루야마 공원(円山公園), 야사카진자(八坂神社), 니넨자카(二年坂), 산넨자카(三年坂), 기요미즈데라(清水寺)를 지나가는 히가시아마(東山) 지구를 둘러보길 바란다. 교토를 대표하는 사찰인 기요미즈데라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수많은 사원이 있으며, 언덕길을 오르며 바뀌는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노다 커피, 블루보틀 커피, 다다미 스타벅스, 아라비카 커피 등 인기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도 모여 있어 쉬엄쉬엄 다닐 수 있고 교토 시내인 기온, 가와라마치와도 가까워 편리하다.

교토를 더욱더 즐겁게 하는 기모노 체험

교토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을 살펴보면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着物)를 입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교토의 멋진 풍경 중 하나다. 교토에는 수많은 기모노 대여점이 있어 쉽게 기모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천년 고도 교토, 기모노를 입고 과거의 교토를 상상하며 교토의 가을을 걷다 보면 그 풍경에 동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야사카진자(八坂神社)



이시베코지(石塀小路)



우미호타루 전망대

바다 위의 섬터 우미호타루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 도미우라 비와쿠라부



미치노에키 도미우라 비와쿠라부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

일본에서는 미치노에키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미치노에키 연결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미치노에키에 관한 정보교환, 미치노에키간의 상호 연계 등을 통해 미치노에키의 질을 향상하고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을 9개의 블럭(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간토(關東), 호쿠리쿠(北陸), 추부(中部), 긴키(近畿), 주코쿠(中国), 시코쿠(四国), 규슈·오키나와(九州・沖縄))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공유, 세



미치노에키 도미우라 비와쿠라부



인포메이션 센터



레스토랑 비와 테라스



지역 주민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



비와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 인증 상패

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미치노에키를 유지,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 지역의 매력을 잘 전달하고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일본 전국 6곳의 미치노에키를 선정,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全国モデル道の駅)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치노에키 도미우라 비와쿠라부

미치노에키 도미우라 비와쿠라부(道の駅とみうら枇杷倶楽部)는 6곳의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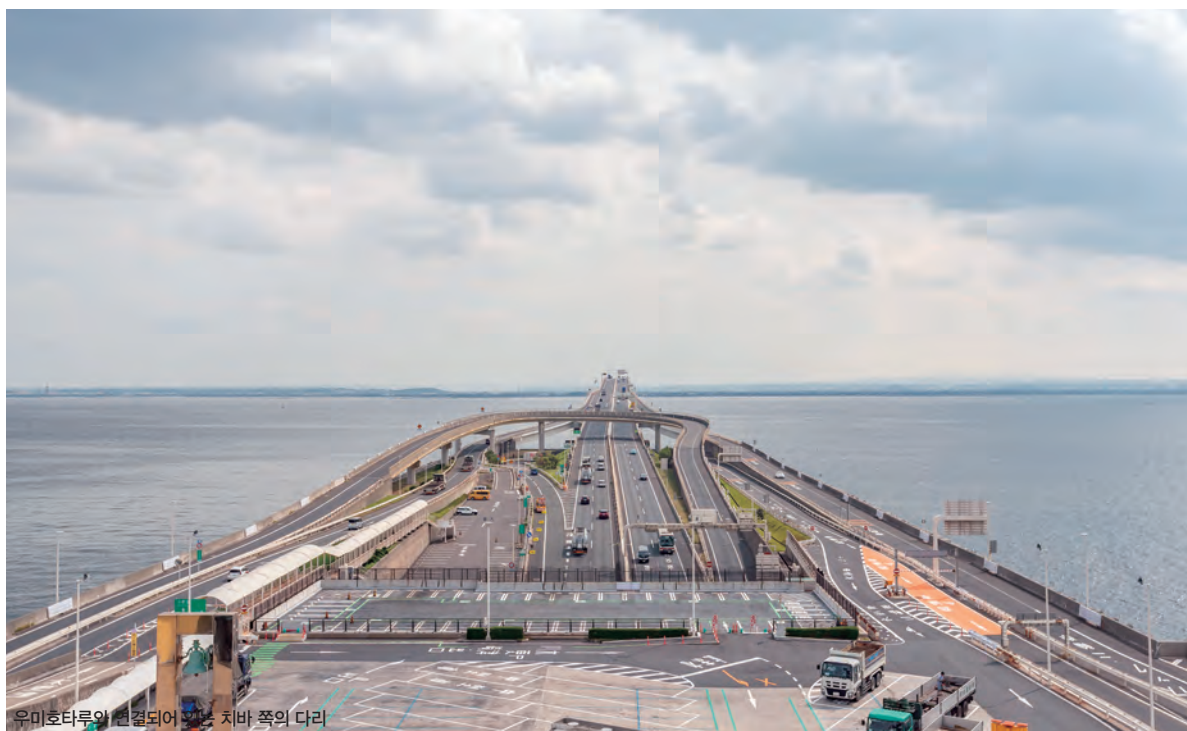


비와 소프트 아이스크림

한 곳으로 일본 전국 미치노에키 그랑프리 2000(全国道の駅グランプリ2000)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도쿄 인근 치바현(千葉県)의 남쪽 미나미보소(南房総) 지역에 있으며, 이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드문 *비와(枇杷) 열매를 이용한 다양한 특산품을 제공하며 미치노에키의 레스토랑에서는 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미치노에키 도미우라 비와쿠라부에는 지역 정보와 관광 정보를 공유하는 인포메이션 센터, 정보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갤러리에는 지역 주민의 작품 활동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특산물인 비와, 땅콩, 정어리 등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이 상점에 진열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딸기 농장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딸기를 직접 따 보고, 맛볼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비와(枇杷) : 비파나무 열매, 페를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하고 기



우미호타루와 연결되어 있는 치바 쪽의 다리

를 내리는 효능이 있는 약재로 사용된다. 중국 후베이성, 쓰촨성 남부가 원산지인 과일이다.

도쿄만 바다 위의 작은 섬터 우미호타루(海ほたる)

미치노에키 도미우라 비와쿠라부는 도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며 이곳을 가기 위해 지나는 고속도로에는 멋진 휴게소가 하나 있다. 터널과 다리로 도쿄만(東京灣)을 건너

치바와 도쿄를 연결하는 도쿄만 아쿠아라인(東京湾アクアライン)의 중간,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처럼 위치한 *우미호타루이다. 360도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전장 650m의 인공 섬으로 도쿄 측에서 우미호타루까지 9.8km는 해저 터널이며, 이후 치바까지의 5.3km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인공 섬 위에 5층 규모의 주차장, 전망대,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쿄만 아쿠아라인을 이용하는 차량이 꼭 들



우미호타루 해저 터널을 팔 때 사용했던 굴착 시설



우미호타루 전망대



우미호타루 오브제



전망 갑판

리는 명소이기도 하다. 전망대에서는 도쿄 앞바다와 도쿄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휴게소에는 이 지역의 해산물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치바현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도쿄만의 입구이자 상징으로 신 고질라, 20세기 소년, 코드 블루 등 다양한 일본 작품 속에도 등장하고 있다.

*우미호타루(海ほたる) : 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로 갯반디라고 한다. 몸길이 3mm의 크기로 생물발광 샘에서 발광물질을 내보내 푸른 색의 빛을 발산한다. 도쿄만 아쿠아라인의 우미호타루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빛을 의미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미치노에키란?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부흥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고,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 있는 곳의 휴게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를 시작하여 1993년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 기능(Retfresh), 도로 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rmation),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활성화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54곳이 등록되어 있다. (2019년 4월 기준)

미치노에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ichi-no-eki.jp/>



다양한 특산물 가게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 코너



일본인 아사리(あさり, 모시조개) 만두



하마초 호텔 전경



하마초 호텔 크래프트 룸 내부



하마초 호텔 크래프트 룸 내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도쿄 호텔

호텔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숙박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인 ‘가심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소확행’ 등 트렌드를 따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콘셉트의 호텔이 등장하고 있다. ‘도쿄 2020년 올림픽 · 패럴림픽’을 앞두고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도쿄의 숙박업계는 그 어느 도시보다 새로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호텔 스테이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될 수 있을 새로운 콘셉트의 도쿄 호텔 네 곳을 소개한다.

호텔을 통해 일본의 공예 장인정신을 알리다 하마초 호텔 니혼바시

E>J >@EL ∞EL QBI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도쿄의 동쪽 지역에 젊은 아티스트와 크고 작은 숍이 모여 구라마에(くらまゑ)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니혼바시 하마초에 2월 오픈한 하마초 호텔은 무지 호텔을 기획하기도 한 건축사무소 UDS(Urban Design System)의 작품이다. 에도시대 이래, 전통이 숨 쉬고 있는 이 지역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하마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마초 호텔은 하마초 지역 부흥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 있다. 푸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건물을 콘셉트로 한 하마초 호텔은 ‘전통’과 ‘모더니즘’을 키워드로 현대적인 일본의 감각을 표현하고자 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곳은 ‘도쿄 크래프트 룸(TOKYO CRAFT ROOM)’이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1616 ARITA JAPAN 그릇을 디자인하기도 한 야나기하라 데루히로(Yanagihara teruhiro)가 디렉팅한 이 공간은 공예를 통해 일본의 철학과 장인정신을 세계로 알리는 거점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일본 기후현의 나무를 사용한 캐비닛, 사가현의 아리타에서 만들어진 컵 등 다양하고 섬세한 공예품으로 채워진 객실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재료로 세련된 디자인의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호텔 1층의 넬 크래프트 초콜릿 도쿄(nel CRAFT CHOCOLATE TOKYO)도 둘러볼 만한 숍이다.

www.hamachohotel.jp/



하마초 호텔 1층 초콜릿 숍 NEL



와이어드 호텔 입구



와이어드 호텔 와이어드 펜트하우스 전경

지역을 살리는 로컬 커뮤니티로서의 호텔 와이어드 호텔 아사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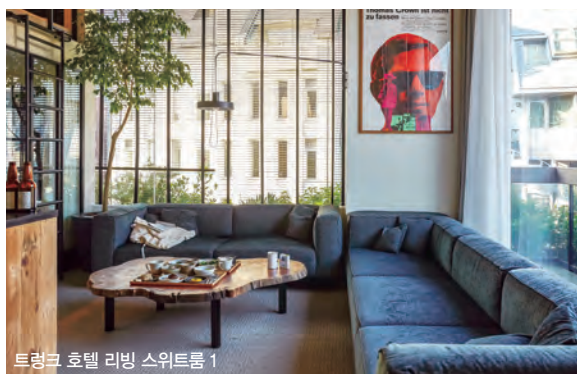
T JOBAEEL QBI

와이어드 호텔은 와이어드 카페로 시작해 70곳에 이르는 다양한 식음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카페 컴퍼니(Cafe Company)가 2017년 오픈한 첫 호텔이다. 카페 컴퍼니의 호텔은 지역 선정부터 흥미로웠다. 도쿄 시내의 트렌디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도쿄 동쪽의 옛 마을인 아사쿠사(Asakusa). 일본을 찾는 외국인, 일본의 젊은 세대, 아사쿠사 할머니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호텔 공간 기획이 시작되었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연결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의 중심이 되는 공간, 지역 장인과 협업하며 그곳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로컬 커뮤니티 호텔을 지향한다. 또 에이스 호텔을 브랜드링 유명세를 얻은 포틀랜드 광고 회사 'OMFGCO'와의 협업을 통해 개성 있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25개 룸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쾌적한 수면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객실에 설치된 덱시야나 매트리스는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큰 요소다. 호텔 근처의 가볼 만한 아사쿠사의 스팟과 주말 휴양지를 추천하는 <1 MILE × 100 MILE> 가이드북을 따라 도쿄 로컬 여행을 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www.wiredhotel.com



와이어드 호텔 가이드북



트렁크 호텔 리빙 스위트룸 1



트렁크 호텔 바 전경



트렁크 호텔 리빙 스위트룸

새로운 사회공헌의 방법을 제시하다

트렁크 호텔 시부야

QORKHOTEL QBI

호텔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사회 공헌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면? 2017년 시부야에 새로운 사회 공헌을 제시하는 소셜라이징 호텔이 문을 열었다. 트렁크 호텔은 감각적인 디자인의 건물과 인테리어뿐 아니라 호텔 내부에서 보고, 만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사회 공헌과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콘셉트로 주목을 받았다.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로비의 벽과 테이블, 공장에서 나온 고무줄을 재활용해 만든 슬리퍼, 사용되지 않는 그릇을 모아 분쇄해 나온 세라믹을 이용해 만든 컵 등 호텔에서 보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며 사회공헌적인 행동이 된다. 또한 호텔의 로비는 시부야의 지역 주민과 예술가, 여행객이 모여 지역 발전과 환경, 다양성, 건강, 문화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소셜라이징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호텔 1층에 위치한 트렁크 바에서는 소셜라이징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행사가 끊임없이 진행된다. 또 트렁크 호텔에서의 경험이 특별한 이유는 다양한 룸 타입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일반 호텔에서 겪어 보기 힘든 탁 트인 통유리의 다이닝 룸, 넓은 발코니가 있는 테라스 스위트 등 다양한 콘셉트의 15개 객실에서는 바비큐 파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해 볼 수 있다.

www.trunk-hotel.com



트렁크 호텔 숍 제품들



무지호텔 로비



무지호텔 룸



무지호텔 D타입룸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품을 제안하다

무지 호텔 긴자

J RGHTEL QBI □

1980년 설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의 중국 선전,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 무지 호텔이 지난 4월 도쿄 긴자에 세계 최대 규모 플래그십 숍과 함께 문을 열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저렴하지도 않은(Anti-gorgeous, anti-cheap)'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된 무지 호텔은 일상생활의 물건들을 제안해온 브랜드 철학 그대로, 여행지에서도 집처럼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연장선과 같은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머무는 동안 먹고, 자고, 입는 고객의 모든 경험을 통해 브랜드를 응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룸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MUJI의 세계관을 마음껏 선보이는 일종의 경험을 위한 쇼룸이라 할 수 있다. 나무, 돌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사용하고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숙면을 위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등 심플하지만 섬세함이 살아있는 룸은 몇 달 전 미리 예약을 해주어야 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싱글 룸부터 스위트 룸까지 총 9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텔 역시 MUJI의 상품 중 하나라는 콘셉트로 성수기, 비성수기에 관계없이 365일 동일한 가격에 객실을 제공하는 것 역시 MUJI 다운 디테일이다.

www.hotel.muji.com



무지 호텔 소품



하마나코 호수

하마나코 호수에서 시작된 이야기 시즈오카현 하마마쓰·하마나코 호수

하마마쓰·하마나코 호수

사방이 산, 바다, 강 그리고 하마나코(浜名湖) 호수로 둘러싸인 풍부한 자연과 도시환경의 균형 속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하마마쓰(浜松). 예로부터 동서의 요충지이자 사적이나 이름난 사찰, 많은 노래에서 불리는 아름다운 하마나코 호수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관광지가 많다. 온천을 비롯한 사이클링과 마린 레저, 꽃구경, 제조업의 거리라서 가능한 산업관광, 여행의 묘미이기도 한 음식은 장어, 굴, 복어 등 그 지역의 신선한 어패류, 교자와 굴 등 방문한 여러분의 입맛을 충족시킬 것이다.

하마나코 호수에서 시작되는 감동의 사계절 순례

하마나코 호수 주변은 1년 내내 꽃이 핀다. 온난한 기후에

서 자란 꽃의 도시에서는 꽃의 명소나 일본 정원, 원예와 조경 장소도 다수 흩어져 있다. 각각에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를 매료시킨다. 감동이 일어나는 사계절의 색채를 즐겨보자.

하마마쓰 플라워 파크

하마마쓰 시제 60주년 기념으로 개장한 식물원이다. 초봄에는 매화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벚꽃과 튜립, 등꽃, 초여름에는 수국과 장미, 가을에는 맥시칸세이지와 석산, 겨울에는 포인세티 등 사계절에 걸쳐 약 3,000종류의 세계의 꽃이 활짝 피는 테마파크다. '일본의 봄은 하마나코 호수에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하마나코 호수 꽃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2월 중순에는 홍



매화와 백 매화를 중심으로 약 110종류의 매화꽃이 피는 외에, 3월 하순의 '벚꽃과 튜립 정원'과 4월 하순의 등꽃 선반이 압권으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료탄지

료탄지(龍潭寺)는 1300년에 걸친 오키하마나코 지방(奥浜名湖地方)의 역사, 문화와 신앙을 오늘에 전하는 엔슈

(遠州)의 고찰이다. 경내에는 에도시대(江戸時代)에 건립된 현(県) 지정문화재인 본당, 개산당, 정문, 부역, 사당 등 귀중한 건물이 들어서 있고, 고보리 엔슈(小堀遠州)가 만든 정원이 사계절 풍광과 조화를 이루며, 유구한 이노쿠니(井の国)의 역사, 문화와 신앙을 오늘로 전하고 있다. 가을에는 경내의 단풍나무가 절정을 맞아, 아름다운 경관으로 찾아오는 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소중하게 간직해 온 보물의 특별 전시 등도 이루어져 1,000년 이상에 이르는 이이(井伊) 가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제조업의 거리, 하마마쓰

스즈키, 야마하, 가와이, 롤랜드, 하마마쓰 포트닉스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대기업이 입지한 '제조업의 거리인 하마마쓰'. 오토바이, 악기, 경차 등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메이커의 시작은,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도전하는 '한번 해보자 정신'의 산물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지금도 최고와 유일, 세계 최초라는 칭호를 받는 제품이나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하마마쓰는



스즈키 역사관

제조업의 일대 집산지다.

스즈키 역사관

3층은 직조기부터 이륜, 사륜으로 변신한 스즈키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2층은 자동차 개발부터 생산 공정을 입체 영상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1층은 현재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1909년 스즈키식 방직기 제작소를 창업한 이래, 다수의 제품과 현재의 자동차 제조공정을 다채로운 구성으로 전시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마마쓰의 역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하마마쓰시 악기박물관

하마마쓰시는 야마하, 가와이, 롤랜드 등 세계적인 악기 메이커가 본사를 둔 일본 근대 악기 산업의 발상지다. 1995년 오픈한 일본 최초의 공립 악기박물관은 ‘음악의 거리’ 하마마쓰시의 상징이다. 약 1,300점에 이르는 세계의 악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악기는 지역별, 주제별로 고르게 전시하고 있으며, 영상을 보면서 악기의 음색을 헤드폰으로 듣거나 신기한 악기 연주 체험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작품 코너도 있다.

하마마쓰의 음식

하마나코 호수, 엔슈나다(遠州灘)를 중심으로 한 풍요로운 수산자원 이외에, 주변에서 양식하는 장어는 일본 유수의 브랜드 장어의 맛과 지명도를 자랑한다. 또, 하마나코 호수 주변은 일본 굴지의 농업 생산 지역으로 풍부한 식재료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다.



하마마쓰시 악기박물관

하마나코 호수 장어



전국에 알려진 하마나코 호수의 장어는 1900년, 핫토리 구라지로(服部倉次郎)가 하마나코 호반에 양식장을 만든 것이 그 시초다. 하마나

코 호수, 덴류가와(天龍川) 강 하구에서 치어를 포획하여, 온화한 기후와 덴류가와 강과 미카타하라(三方原) 대지의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를 써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정성껏 키우고 있다. 살이 단단하고 농후한 맛이 평판을 얻고 있다.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여 간토와 간사이 스타일 모두 맛볼 수 있다.

엔슈나다의 천연 복어

식용 복어 중에서도 최고급 복어다. 엔슈나다는 천연 복어 어획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일본 굴지의 어장이다. 10월이 되면 ‘천연 복어’ 어



획이 가능해진다. 연분홍빛이 도는 생선 살의 흰 부분은 고단백, 저지방이다. 껍질은 피부 노화 방지와 항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미용과 건강에 좋은 식재료다. 미식가도 인정하는 뱃사(복어 회), 야채와 함께 즐기는 뱃치리(복어 냄비 요리), 고소한 이리 구이, 지느러미 술 등 엔슈나다 지역의 신선한 복어를 즐겨보자.

(집필 : 시즈오카현, 협력 : CLAIR, Seoul)



기리시마의 시화인 미야마기리시마(철쭉의 일종)와 다케치호노미네 산

웅대한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기리시마시

기리시마시(霧島市)는 가고시마의 거의 중앙부에 있다. 가고시마 공항에서 내리면 그곳이 바로 기리시마시다. 국제공항과 고속도로,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인구는 약 12만 5,000명으로 가고시마현에서 제2의 규모를 자랑하며 발전하고 있다.

1934년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살아있는 자연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또 2010년부터 일본 지오파크로 인정되었다. 북쪽은 최고봉인 가라쿠니다케(韓国岳)를 포함해서 기리시마산(霧島山)이 이어지고, 남쪽은 광대한 평야부가 긴코만(錦江灣)과 면해 있어 사쿠라지마(桜島)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듯 풍요로운 자연경관에 둘러싸인 바다, 산, 강, 전원, 온천 등이 다채롭고 풍부한 지역이다.

신비의 세계가 살아있는 기리시마

천손강림(天孫降臨) 신화란 무엇인가. 신들이 천상계에서 기리시마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로, 신들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를 들여다보니, 안개가 자욱한 바다 가운데 섬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신들은 창을 꺼내 이 섬에 표식을 했다. 이때 신들이 거꾸로 떨어뜨린 창은 정상에 꽂혔으며, 지금도 다카치호(高千穂) 산정에 있는 아마노사카호코(天之逆鉾)는 이때 꽂힌 창이라고 전해져 온다.

천손강림 신화의 주인공인 니니기노미코토(ニニギハコト)를 모신 곳이 기리시마 신궁(霧島神宮)이다. 조금 걸어가서 숲속의 기리시마 신궁을 보는 순간 매우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된다. 6세기에 창건되었으며, 기리시마 산들의 분화로 소실과 재건을 반복했다. 지금의 신전은 1715년 사쓰



기리시마 신궁



기리시마 온천시장 광장

마 번주인 시마즈 요시타카(島津吉貴) 공의 기부로 세워졌다. 봄에는 벚꽃, 가을은 단풍이 아름다워 참배길부터 정내에 걸쳐 단풍 풍경이 이어진다.

다양한 온천과 수질을 갖춘 온천지

기리시마시에는 많은 온천지가 있으며 수질과 탕의 색도 다양하다. 국민 보양 온천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족탕, 치료를 위해 온천수를 마시는 음수대 등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대형 호텔이나 여관 등 대부분의 숙박지에 가족탕 등의 온천 시설이 있다.

또 4개의 온천마을이 있다. 준엄한 기리시마의 산골짜기에서 일본에서도 보기 드물게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기리시마 온천마을(霧島温泉郷), 1년 내내 관광이나 트레킹 목

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치유 탕으로 복적거리는 기리시마 신궁 온천마을(霧島神宮温泉郷), 깊은 녹음에 둘러싸인 노천탕을 즐길 수 있는 묘켄·안라쿠 온천마을(妙見・安楽温泉郷), 가고시마현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불리는 히나타야마 온천마을(日当山温泉郷)이 있다. 이러한 온천마을 외에도 여러 온천이 있으며, 수질이나 효능은 지역마다 다르다. 개성이 가득한 기리시마 온천을 즐겨보기 바란다.

기리시마 온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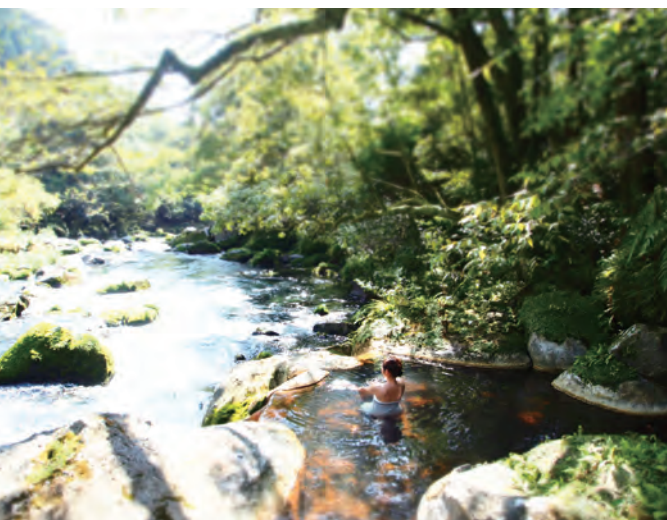
기리시마 온천마을의 중심에 있는 족탕과 구루메, 선물 판매, 관광 안내소가 갖추어진 물산관이다. 광장의 찐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온천의 증기로 찐 달걀, 야채 등을 포장해갈 수 있다. 그 외에도 썩어 들어간 만두피에 팔소를 넣은 온천 만두가 인기가.

현 내외에서 평판이 좋은 흑초

후쿠야마(福山) 지역에서는 흑초 향아리가 많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약 200년 전인 에도 시대(江戸時代)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식초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만 향아리(アマン壺, 가고시마에서 식초를 아만이라 부른다)이라 불리는 사쓰마야키(薩摩焼) 향아리 속에 찐쌀과 누룩, 천연 샘물만을 원료로 1년에서 3년 천천히 발효, 숙성 시켜 완성된다.

숙성 과정에서 식초 색이 짙게 변하며, 한층 순하고 감칠맛이 더해진다. 물로 희석해서 마시거나 드레싱으로 가공



묘켄·안라쿠 온천마을



후쿠야마의 향아리 밭



사쓰마 흑담

맛보기 바란다.

기리시마의 축제와 이벤트

기리시마에는 전통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몸이 문힐 정도로 활짝 핀 아름다운 꽃, 국제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현지인과 만남도 즐거움 중 하나다.

하쓰우마 축제

봄의 도래를 알리는 하쓰우마 축제(初午祭)는 가고시마 신궁에서 음력 1월 18일을 지난 다음 일요일에 개최된다. 방울이 달린 20여 마리의 말과 2천여명의 무희가 북과 사



하쓰우마 축제



기리시마국제음악제

미센 소리에 맞춰 하나가 되어 춤을 춘다. 가내 안녕, 오곡 풍년, 액땀 등을 기원하는 전통행사다.

료마 허니문워크

료마 허니문워크(龍馬ハネムーンウォーク)는 사카모토 료마와 아내인 오료(お龍) 부부가 일본에서 첫 신혼여행으로 기리시마에 온 것을 계기로 3월 춘분 전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료마 허니문 워크가 개최된다. 거리에 따른 다양한 코스에는 매년 일본 전역에서 많은 참가가 있으며, 기리시마의 자연과 역사,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기리시마 국제음악제

매년 7월 중순부터 2주간 개최되며, 자연이 풍요로운 기리시마 고원에서 클래식 음악에 심취할 수 있는 이벤트로 일본 국내외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모인다. 또 음악제를 위해 건설된 홀 미야마 콘서트(みやまコンサート)는 국제음향학회에서 '기적의 홀'이라 칭송받는 음향과 분위기가 있는 홀이다. 외관은 대양으로 나아가는 배를 이미지하고 있으며, 자연과 음악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고 있다.

신들이 이 지역을 다스렸다고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부터 자연, 온천, 음식, 전통 축제 등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 기리시마. 인천 공항에서 가고시마 공항까지 약 1시 30분으로 여행자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집필 : 기리시마시, 협력 : CLAIR, Seoul)



바르크 인터네셔널 뮤지엄 바록 · 인터네셔널 · 뮤지엄 · 푸에블라, 멕시코, 2016) ©CUT11

자연을 담은 공간으로 환경과 소통의 건축가 이토 도요오 伊東豊雄



이토 도요오 ©Toyo Ito & Associates, Architects

이토 도요오는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의 고향인 나가노현에서 자란 후, 도쿄로 이사해서 도쿄 도립 히비야 고등학교, 도쿄 대학 공학부를 졸업.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단게 겐조(丹下健三)의 제자 중 한 명인 기쿠타케 기요노리(菊竹清訓)의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1971년부터 독립하여 어반로봇(アーバンロボット)이라는 건축설계 사무소를 설립했으며 그의 초창기 작품은 주로 일본인의 도시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일본의 경제성장과 함께 대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며, White U, 실버 햇(シルバーハット) 등 개인 주택을 중심으로 저렴하며 가성비 좋은 미



호텔 포르타 피라(ホテル・ポルタ・フィラ, 스페인, 2010) ©Zarateman



미키모토 긴자(ミキモト銀座2, 도쿄, 2005) ©Kenta Mabuchi



센다이 미디어 테크(せんだいメディアテーク, 센다이, 2000) ©scarletgreen

니컬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소비 사회에 살고, 물건만이 아니라 생활 공간까지 소비하는 젊은 여성을 위한 도시의 유목민(노매드, ノマド)을 테마로 도쿄 유목 소녀의 파오(東京游牧少女の包)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도시 비판 활동을 했다.

1986년, 요코하마역 서쪽 출구에 만든 심볼타워 겸 지하 환기탑인 바람의 탑(風の塔, 가제노토우)은 무수한 구멍을 뚫은 금속판과 다수의 조명으로 구성된 단순한 반투명 탑으로 보이지만 빛, 바람 등 주변의 기상 조건에 따라 표면의 빛이 다르게 반사되며, 금속판의 새로운 사용 법과 환경과 건축의 상호 작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의 거주 공간인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작업의 폭을 넓혔으며, 도쿄 도심의 상업건물과 세계 곳곳의 상업 건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센다이 미디어테크(せんだいメディアテーク)를 중심으로 실험적이며 독특한 구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이용자와 소통하는 유동



실버 햇(シルバーハット, 이마바리시, 1984) ©Kenta Mabuchi



바람의 탑(風の塔, 요코하마, 1986) ©Wiii

적인 공간 활용의 건축을 고안했다. 이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2011)을 경험하며, 다시 집과 개인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으며, 특정 소유주를 위한 공간이 아닌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함께 어우러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을 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프리츠커 건축상(2013)을 받게 된다.



이마바리시 이토도요오 건축 뮤지엄(今治市伊東豊雄建築ミュージアム, 이마바리시, 2011) ©Japanexperterna.se



2009 월드 게임즈 스타디움(2009ワールドゲームズスタジアム, 대만, 2009) ©Peellden

2006년에는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에서 리바 골드 메달(RIBA 골드 메달),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금메달 등 다양한 건축상을 받으며 세계의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우수한 건축가를 배출하는 교육자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디자인 건축을 위한 가구 디자인도 병행하고 있으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바람의 탑(風の塔, 요코하마, 1986), 센다이 미디어 테크(せんだいメディアテーク, 센다이, 2000), 미키모토 긴자 2(ミキモト銀座 2, 도쿄, 2005), 2009 월드 게임즈 스타디움(2009ワールドゲームズスタジアム, 대만, 2009), 호텔 포르타 피라(ホテル・ポルタ・フィラ, 스페인, 2010), 이마바리시 이토도요오 건축 뮤지엄(今治市伊東豊雄建築ミュージアム, 이마바리시, 2011), 바르크 인터내셔널 뮤지엄 바르크·인터ナショナル·ミュージアム·브에브라, 멕시코, 201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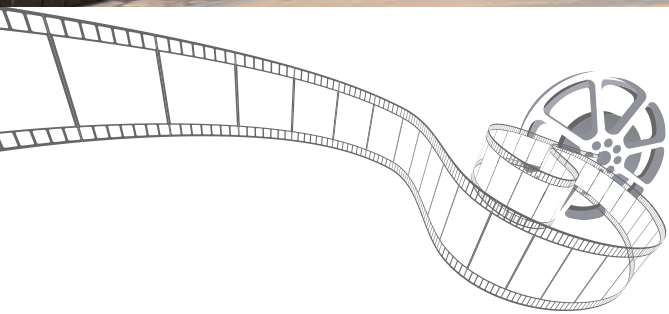


프리츠커 건축상 Pritzker Architecture Prize

프리츠커 건축상은 매년 하얏트 재단이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79년 제이 프리츠커(Jay A. Pritzker)가 만들고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건축상 중 하나이다. 이 상은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며, 건축적 작업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양질의 혁신성과 건축적 사고의 훌륭함이 이 상의 기준이 된다. 건설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 요건이다.



날씨의 아이, 시바공원(芝公園)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속의 도쿄 東京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겸 애니메이터 신카이 마코토(新海 誠), 애니메이션 속의 아름다운 빛의 묘사로 만들어진 그의 작품 속의 배경은 대부분 실제로 존재한다. 그가 회사를 다니며 생활하던 도쿄 곳곳의 풍경은 작품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만나볼 수 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중 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과 배경지를 직접 찾아보았다.





초속 5센티미터 벚꽃 교차로 신구바시(参宮橋)



초속 5센티미터 신주쿠 고층 빌딩



초속 5센티미터 오다큐(小田急) 선 열차 플랫폼



초속 5센티미터 벚꽃 나무

초속 5센티미터(秒速5センチメートル)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알린 작품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을 배경으로 벚꽃이야기, 코스모너트, 초속 5센티미터 3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벚꽃 이야기, 초속 5센티미터 두 편이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도쿄의 벚꽃 풍경, 오다큐(小田急)선 철도와 역, 신주쿠(新宿) 주변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2007년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받았다.

너의 이름은(君の名は。)

일본 역대 영화 흥행 순위 4위, 세계 125개국 3억 6,102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한국에서도 367만 명이 관람하며 역대 개봉 일본 영화 1위,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으

로 기록된다. 도쿄의 소년과 시골 마을의 소녀가 몸이 바뀌며 일어나는 이야기로 도쿄, 나고야(名古屋), 나가노(長野), 히다 후루카와(飛騨古川), 다카야마(高山) 등 일본의 다양한 지역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도쿄의 신주쿠, 요쓰야(四谷), 롯폰기(六本木), 시나노마치(信濃町), 스가신사(須賀神社)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며 배경지를 찾아가는 성지순례 여행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제49회 카탈루냐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2016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상, 제71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받았다.

언어의 정원(言の葉の庭)

영화의 대부분의 배경이 도쿄 신주쿠와 신주쿠 교엔(新





너의 이름은 스가신사(須賀神社)를 찾은 애니메이션 팬



너의 이름은 신주쿠 타임스퀘어



너의 이름은 스가신사(須賀神社)의 계단



너의 이름은 팬들이 남긴 애마(絵馬)

宿御苑)이며, 장마 기간의 도쿄를 아름답게 묘사한다. 선생과 학생의 로맨스 이야기로 주인공은 감독의 다음 작품인 ‘너의 이름은’에서 잠깐 등장하기도 한다. 2013년 애니메이션 고베, 국제 판타지아 영화제, 슈투트가르트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받았다.

날씨의 아이(天氣の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7번째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2019년 공개한 최신 작품이다. 비가 계속 오는 이상기후의 도쿄를 배경으로 요요기(代々木), 가부키초(歌舞伎町), 이케부쿠로(池袋), 고엔지(高円寺), 조시가야(雑司が谷),





날씨의 아이 신주쿠 가부키정(新宿歌舞伎町)



날씨의 아이 조시가야 노조키지카



날씨의 아이 교겐지 히카요인리 (氷川神社)의 펜이 그린 애마



날씨의 아이 긴자 아사히이나라 신사(朝日稲荷神社)

다바타(田畑), 긴자(銀座), 시바공원(芝公園), 롯폰기 힐즈(六本木ヒルズ) 등 도쿄의 수많은 마을과 장소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언어의 정원 신주쿠 교엔

신카이 마코토

新海 誠, 1973~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1인 제작과 아름다운 작화 속의 빛의 효과와 묘사로 빛의 마술사라고도 불린다. 2002년 감독, 각본, 연출, 작화, 미술, 편집 등 대부분의 작업을 혼자서 진행한 애니메이션 '별의 목소리'로 이름을 알렸으며, 한국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조속 5센티미터'와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한국에서 300만 이상의 관객으로 역대 개봉한 일본 영화 중 1위를 차지한 '너의 이름은' 등의 대표작이 있으며, 최신작인 '날씨의 아이' 역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 일본 고쿠시칸대학교 가라테부 공연

강혁, 지예림 일본문화원 리포터(5기)

지난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되어, 양국 최대 민간 교류 행사로써 양국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축제 15주년을 맞이하여 '축제 15년 새로운 내일로(おまつり15年 新たな明日へ)'란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무대공연과 참여 행사 등을 즐길 수 있었다. 또 중앙의 무대를 기준으로 지자체 부스, 기업 부스, 체험 & 이벤트 부스 등 찾기 쉽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지자체 부스에서는 지역 홍보뿐만 아니라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이 축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였다. 지자체 부스에서는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참여 부스에서는 이벤트를 참여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특히 보기 좋았다.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를 소개하

는 축제이지만, 일본인도 참여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했다.

J-POP 공연과 한일소년소녀합창단, 코스프레 등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 그중 역동적인 움직임과 힘 있는 공연을 보여준 고쿠시칸대학교의 가라테 공연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고쿠시칸대학교 가라테부(国士舘大学 空手部)는 지난 2011년 체육학부 무도학과에 세계 최초로 가라테 제반 무예 코스가 설치되어, 현재 80여 명의 부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과 OB, OG가 일본 국내외에서 선수와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경기뿐만 아니라 가라테 체험 교실, 중고교에서 연무와 공개수업 등 가라테의 매력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 고쿠시칸대학교 가라테부의 부원들은 가라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활기차고 활동적인 무대를 꾸몄다.

가라테는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일본의 무도로 도구 없이 신체 각



부위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술이다. 한국에서는 권격도, 공수도, 가라테, 당수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가라테는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올림픽에서도 경기를 볼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 멋진 무대를 꾸며준 고쿠시칸대학교 가라테부 부원을 직접 만나 보았다.



**한국에 와서 공연한 기분은 어떻게
쉽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불안한 점도 있었지만, 일주일간 함께 지내고 나니 한국인은 정말 좋은 분들이라,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 2020년 올림픽에서 가라테가 정식종목이 되었는데, 내년 올림픽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올림픽 말입니까? (웃음) 모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균 연습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아침은 1시간, 오후는 2~3시간 정도입니다. 합쳐서 3~4시간 정도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라테가 올림픽 종목이 되었지만, 아직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알려진 것은 아니므로, 우리가 좀더 널리 알려 보다 유명한 스포츠로 만들어서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의 분위기를 살려가고자 합니다.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었지만, 힘 있는 동작에 절도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가라테 공연은 단연 눈에 띄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직접 일본 가라테 선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가라테라는 분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이 종목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내년 도쿄 2020년 올림픽에서 가라테 경기를 본다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다. 가라테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Tokyo 오감의 바벨탑을 위한 축제

이상영 일본문화원 리포터(5기)



9월 1일 서울에서 시작한 한일축제한마당이, 9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도쿄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는 개막식과 공연을 비롯해 한식, 한복 및 고구려 의상, 양국 시민의 토론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히비야 공원은 뜨거웠다.

고대 불교 철학자 바수반두는 가장 껌데기인 시작부터 청각, 후각, 미각을 거쳐 가장 내밀한 촉각까지 우리의 오감이 양파껍질처럼 위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이 모든 오감을 활용해서 맘 흘려가며 교류한 결과, 기존의 차가운 편견과 오해를 녹이고 결국에는 함께 손잡고 살아가야 할 관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가장 차선의 의사소통은 역시 대화다. 몸짓과 억양 그리고 눈빛으로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대화가 있다면, 언어는 달라도 서로의 진심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 오감과 몸짓을 통한 대화는 냉소적인 태도보다는 서로 돕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내고, 민족과 국가라는 내셔널리즘의 이질성보다는 인류라는 동질성에 좀 더 빛을 비추려 했다.

약 이틀간의 행사를 함께한 사람들은 흘린 땀만큼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었다.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고 싶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축제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우리의 오감 너머에는 훨씬 더 긴 풍경이 일렁이고 있을 것이다.



근대의 시발점인 히바야 공원에서 한국을 만나다

이정민 일본문화원 리포터(57)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양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일축제한마당이 개최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 2005년, 도쿄에서는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각각 15주년과 11주년을 맞이했다. 나는 이번에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서울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축제한마당에 참가했다. 지난 9월 28, 29일 이틀간 히바야 공원에서 진행된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Tokyo'는 8월 한국의 한여름 날씨처럼 더웠고,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뜨거웠다.

한국 청년 방일단으로 도쿄에 온 일본문화원 리포터들은 행사 첫날인 28일은 현장 취재, 29일은 일한문화교류기금 부스를 운영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지만, 행사장은 많은 취재진으로 진입이 어려웠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음식 부스 앞을 가득 메운 도쿄 시민의 모습에서 기존의 생각과 다른 점을 느꼈다. 취재진은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둘러싸고 앞으로의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양국 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과 도쿄를 번갈아 가며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취재 대상'이 되고 있었다.

내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은 둘째 날이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들은 고구려 의상 시착 체험부스와 한일 교류 부스 '한국 청년과의 대화' 두 곳에서 일한문화교류기금의 대학생 방한단 과거 참가자 모임인 JKAF와 함께 부스를 운영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언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일본인들이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따스한 흥미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토론 부스였다. 토론 부스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축제에서 토론한다고?'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시선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다.

서울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여하여 현장의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었다. 정치 문제와는 별도로 민간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여전히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로서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제7회 고교생 일본퀴즈대회 개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사)부산한일교류센터가 영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퀴즈로 풀어보는 제7회 일본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12월 7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하며, 대구, 경북, 경남 등에서 신청한 53학교 79팀 158명이, 2인 1조의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겨루게 된다.

단체전 수상자 4팀(8명)에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문화 탐방, 홈스테이, 일본학생과의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0일간의 일본방문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usan.kr.emb-japan.go.jp>

일시 12월 7일(토) 14:00~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체육관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사)부산한일교류센터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제15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상대국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교류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는 행사다. 한일 교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말하기 3분 내외(일본어, 한국어 각각 A4 1장)의 스피치 원고(한국어와 일본어)를 작성. 응모자 중 예선 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약 20명의 참가자에게 각종 상장과 부상 그리고 기념품을 증정한다.

본선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참가 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 일본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국어,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일본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수상 경력이 없을 것)

원고 모집 10월 4일(금)~11월 22일(금) 17:00까지 ※ 메일 접수만 가능

주제 자유 주제(정치, 사상, 종교적인 것은 제외)

응모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다운 받아 필요 사항을 기재,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제15회 한일교류 말하기대회 응모_○○○(성함)'라 적어 이메일 접수 jetaakorea@gmail.com

· JETAA 대한민국지부(공식 커뮤니티) <http://cafe.daum.net/jetprogramme>

· 주한일본대사관 https://www.kr.emb-japan.go.jp/event/speech_contest_2019.html

· 일반재단법인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http://korea.clair.or.kr/>

문의 JETAA 대한민국지부 jetaakorea@gmail.com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 140)



2020년도 JET프로그램 모집요강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사업)의 약칭으로 일본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 및 학교에서 외국어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JET프로그램은 일본 정부(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자치체국제화 협회)의 협력하에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다. 모집 직종과 요강 등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www.kr.emb-japan.go.jp/cult/JET.html>

모집 직종 국제교류원(CIR :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외국어 지도 조수(ALT : Assistant Language Teacher)

모집 기간

· 방문 접수 10월 24일(목)~11월 14일(목) (10:00~12:00, 13:30~17:30, 휴관일 제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프로그램 상담실

· 우편 접수 10월 24일(목)~11월 11일(월)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

봉투 겹면에 'JET프로그램 응모 서류'라고 명기(등기 우편 발송, 반송용 우편 봉투를 동봉할 것)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상담실

02-765-3011(내선140), jet@so.mofa.go.jp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최현정 주축을 유학 여행기

임진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간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조선왕조 외교사절단 '조선통신사'.

*1711년 조선통신사 일행을 그린 '정덕도조선통신사행렬도' 일부. 오사카 역사박물관 소장. 신기수 컬렉션 중.



올해는 특별히 조선통신사선을 재현해 바다에 띄워 승선을 체험하는 이벤트도 있었다.



*조선통신사선-조선통신사들을 태우기 위해 국가에서 제작하고 운영한 배.

그 당시 일본의 왜관이 있었다는 부산 자성대 공원에 조선통신사 역사관에서 만난 한 사람.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일본 에도시대 조선과의 '성신교린'을 주장한 유학자. 대마도 번에 소속된 외교관으로 조선의 사정은 물론, 조선과 무역, 정치외교에 정통하였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던 것은 교토 유학시절, 교토에서 만난 어느 지인을 통해서였다.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심의 사قم'은 곧,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을 가지고 사귀는 일.

이를 계기로 나는 아메노모리 호슈를 찾아 '아메노모리 호슈암'에 가게 되었고 그의 존재를 알려 주었던 나의 지인은 기꺼히 동행해 주었다. 바다처럼 넓은 비와코(琵琶湖) 호수를 지나 아메노모리 호슈암에 도착했다.



*시가현 다카쓰키에 있는 호슈암(芳洲庵)은 조선통신사 관련자료 전시와 한일친선교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교토에 있는 고려미술관에서도 조선통신사 관련 그림 3점이 유네스코에 함께 등록되었다.



*마상재대(馬上才圖)의 일부.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왕의 친서를 들고 찾아 온 이웃나라 고위 관료와 문인과 예술인이 함께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었고 조선에서 찾아 온 국민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었다고 한다.



*하나부사잇초(英一蝶)작, '조선통신사소동도' 일부. 오사카 역사박물관 소장. 신기수 컬렉션 중.

오늘, 교토 가모가와(鴨川)의 산조(三条) 다리를 바라보며 그 옛날, 일본인의 뜨거운 환영 속에 이 다리를 건넌을 한일 양국의 정경다리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살포시 눈감고 그려본다.

